비슷하면서도 다른 명절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음력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七夕)이다. 칠석은 명절 중 하나로 중국에서 전해져 와서 우리의 세시 풍속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에서 건너온 칠석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의 칠석 축제 중 특히 한국과 다른 것은 가늘고 긴 종이(短冊; 단자쿠) 에 소원을 적어서 대나무 가지 등에 매달아 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의 여성들이 직녀와 같이 옷(감)을 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 에도 시대에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가 등장했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풍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은 절이나 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골목길이나, 동네 슈퍼 등에서도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칠석을 함께 즐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른 또 하나는 일본의 칠석은 양력 7월 7일이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칠석이 음력 7월 7일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음력 기념일을 모두 양력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날과 추석이 국가 최대 명절로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있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구 대이동이 벌어진다. 일본에서도 1월 1일과 8월 15일이 주요한 명절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이 또한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고 있으며, 1월 1일에는 인구 대이동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1월 1일은 집 주변에 있는 절이나 신사를 찾아 신년맞이 행사를 하며, 가까운 지역의 친지를 찾아 인사를 나눈다. 1월 1일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에서도 1월 1일은 신정이라 하며 일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연휴를 활용해 고향을 찾는다는 차이가 있다.

설날인 음력 1월 1일은 양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된다. 일본에서는 설날과 비슷한 시기면서 우리의 입춘에 가까운 2월 3일을 절분(節分; 세츠분)이라 하며, 이 또한 큰 명절 중 하나다. 절분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집안의 액운을 쫓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절분 날에도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도깨비에게 콩을 던지며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며 외치는 것이다. 이날은 일본의 모든 절과 사원에서 절분 행사와 콩 뿌리기 의식이 진행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도깨비 가면을 쓰고 아이들이 콩을 던지기도 한다.

한국에서 추석은 한 해 농사에 대한 수확을 앞두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매년 음력 8월 15일이다. 일본에서는 양력 8월 15일을 오본(お盆)이라고 하여 조상의 묘지를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 오본이 우리의 추석이 아니라 백중(음력 7월 15일)과 더욱 유사하다는 설이 더 유력하기도 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행사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하튼 일본에서 8월 15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관습적으로 그날 전후로 명절 휴가를 주기 때문에 이 오본 휴가 기간에 고향을 찾는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기간이 1년 중 가장 더워서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이 정서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렇게 같은 명절을 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 각자의 개성이 엿보이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기도 하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도덕적 용기를 하찮게 여기면?

신세철의 쉬운경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상황은 80년대 초에 벗어나서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라 할 3만5000달러를 돌파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예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불안감이 오히려 커가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에 더하여 도덕불안까지 5대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안해하는 환경에서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불태우려 들기보다, '한탕'할 건이 어디에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는 모습들도 보인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환상 속에서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저하되어 가는 까닭이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인사들이 큰일을 맡으면 수치심을 상실하고 오만과 편견에 젖어 남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수치를 느끼기는커녕 외려 거들먹거리며 으스댄다. 저 혼자 잘났다는 소영웅심리에서 비롯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도 자화자찬으로 덧칠하기 일쑤다. 이러한 인사가 지도층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양하는 길을 외면하고 번드르르한 가짜 애국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그 부작용으로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려 선량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빈곤에다 정신적 굶주림으로 시달려야 한다.

도덕적 용기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원리 원칙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다 줄었다 하여 지도층이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받는 마구잡이 사회가 된다. 그런 환경에서는,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조차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 서로 아귀다툼하는 패거리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는 늘 지녀야 할 떳떳한 마음 즉 항심(恒心)을 잃게 되어 도덕 불감증에 빠질 수 있다. 지도층 인사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얼토당토아니한 논리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도덕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커다란 까닭은 5대 불안 중에서도 도덕 불안 때문임을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 '도덕적 용기'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날은 언제쯤 올까? /경제칼럼니스트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8			5		6	1
	1		3					
6				4			9	
			4	7				2
		1				6		
2				6	3			
	2			3				6
					4		2	
8	6		9			5	1	3

4	6		5					3
		5			2			1
			9	6			4	
	2					8		7
		4				3		
7		8					5	
	5			9	7			
2			6			1		
6					5		7	9

4	6	9	5	8	1	7	2	3
3	8	5	4	7	2	6	9	1
1	7	2	9	6	3	5	4	8
5	2	6	3	4	9	8	1	7
9	1	4	7	5	8	3	6	2
7	3	8	1	2	6	9	5	4
8	5	1	2	9	7	4	3	6
2	9	7	6	3	4	1	8	5
6	4	3	8	1	5	2	7	9

7	3	8	2	9	5	4	6	1
4	1	9	3	8	6	2	7	5
6	5	2	7	4	1	3	9	8
3	8	6	4	7	9	1	5	2
9	7	1	8	5	2	6	3	4
2	4	5	1	6	3	7	8	9
1	2	7	5	3	8	9	4	6
5	9	3	6	1	4	8	2	7
8	6	4	9	2	7	5	1	3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6월 15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간다. **48년생**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행복이다. **6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72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84년생** 지인 관리를 편하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소 **37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49년생**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61년생** 가는 사람은 가도록 붙잡지 마라. **73년생**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맑으니 하루 종일 운수대통. **85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호랑이 **38년생** 투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 **50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62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다시 계획을 잘 세워라. **74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인 듯하다. **86년생**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말자.

토끼 **39년생** 자꾸 필요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1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도록. **63년생** 거짓의 근거 없는 칭찬에 마음이 붕 뜬다. **75년생** 좋은 길상한 복은 자연 빛을 따라 모인다. **87년생** 변화 속에 기회가 온다.

용 **4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쳐야 한다. **52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서로 타협하는 것. **64년생** 운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해결. **76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88년생** 늦지 않았으니 계속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뱀 **41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3년생** 결혼은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65년생** 약속이 자꾸 다른 사람은 멀리. **77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실수가 적다. **89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말 **42년생** 오후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54년생**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보라. **66년생** 내가 행복한 것이 인류 행복의 첫걸음이다. **78년생**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좋은 일. **90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나 이성으로 마음이 복잡하다.

양 **43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워진다. **55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67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불운을 이긴다. **79년생** 여러 모임에서 감정을 절제해야 계속 이득. **91년생** 상대방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원숭이 **4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56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였으니 주의. **68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80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92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즐거운 하루.

닭 **45년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피곤하다. **57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타격이 크다. **69년생** 개업은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81년생** 부분적 결함을 탓하지 마시길. **93년생**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해야 슬프지 않게 된다.

개 **46년생** 심신이 고달프니 휴식을. **58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70년생** 동료와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 **82년생** 마음의 질을 높이는 일은 거창하지 않는데. **94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돼지 **4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5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1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다. **83년생** 신세 진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95년생** 삼재팔란 관재구설이라 했으니 이직하거나 직장 그만두는 일은 심사숙고.

김상회의 四季

재물복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에게 재물복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돈은 필수다.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하고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 재물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느냐를 궁금해한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다. 그중의 하나는 돈을 지키는 것이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드물다. 겁재劫財 사주 같은 경우는 특히 지키기에 신경 써야 한다.

겁재가 많은 사주는 주변에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생긴다.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가져가 버리곤 한다.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잠시 빌려달라고 하거나 밀린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사정한다. 그럴 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겁재 사주는 그게 잘 안된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도 겁재 사주의 또 다른 특징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그 욕망을 돈으로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지 않아도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게 대표적이다. 비싼 물건을 사서 남에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만족감을 얻는다.

이런 소비를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쌓이지 않는다. 마치 손안에 가득한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이 새어나간다. 재물복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돈을 지켜야 재물복이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된다. 무작정 돈 벌 생각을 하기에 앞서 지키지 못해서 새어 나가는 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새어 나가는 재물을 막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도 재물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